

## 서울쇼트공업 진짜 주인 블랙스톤, 교섭 나와라

단체교섭 블랙스톤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곰팡이·씻가루 날리는 현장 바꾸고 싶다”

곰팡이와 씻가루가 날리는 현장에서 고통받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 서울쇼트공업 노동자들이 2월 16일 상경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블랙스톤에 제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바꾸고, 임금 올리자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서울쇼트공업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민·형사 고소, 고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서울쇼트공업은 경남 창원에 있는 금속가공업체로, 실소유주는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이다. 서울쇼트공업은 지난해 제조 과정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으로 경남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곰팡내가 진동하는 탈의실, 휴게시간 미보장, 저임금 현장을 바꾸기 위해 서울쇼트공업 노동자들이 2021년 2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노조 설립 이후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서른 차례 넘게 벌였지만, 사측은 “결정 권한이 없다, 블랙스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았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쇼트공업 휴게실에 곰팡내가 진동하고, 노동자들은 씻가루를 뒤집어쓴 채 제대로 쉬지도

밥을 먹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1년 넘도록 교섭했지만, 사업주와 실제 주인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계속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한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악덕 외국 투기자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국산 연 동지들이 상경해 폐업과 해고에 맞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한국계 이츠 동지들도 블랙스톤의 일방 흑자폐업으로 500일 넘게 투쟁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서울쇼트공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지회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블랙스톤이 결단해야 한다”라며 “동지들을 사지로 내몬다면 금속노조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임명택 수석부지부장은 “대표이사 블랙스톤이 주인이니 그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파렴치한 태도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다”라며 “진짜 주인이 블랙스톤이라면 당장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블랙스톤은 2021년 7월 기준 6,840억 달러(약 812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다. 블랙스톤은 지난 2020년 흑자기업이었던 대구 한국계이츠를 일방 폐업하고, 한국 생산 물량을 전량 중국공장으로 이전해 ‘외국인 투자기업 먹튀’로 한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블랙스톤의 한국계이츠 폐업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 6천명의 일자리를 위협했다.

# 삼성 재벌 이재용, ‘노조 패스 경영’ 전환했나

## 삼성전자노조 임금교섭 조정중지 ... 공동교섭단, “노사협의회 이용 꿈수 중단하라”

중앙노동위원회가 2월 14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임금교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이 계속 노조를 무시하고, 성실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삼성그룹 전체 노조와 연대해 쟁의행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9월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이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자 2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범무법인 여는’은 2월 1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임금교섭 중노위 조정중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교섭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재벌이 무노조 경영을 ‘노조 패스 경영’으로 바꿔치기해 여전히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조 공동교섭단을 제치고 노사협의회와 임금인상률을 논의했다.

공동교섭단 중노위 조정을 담당한 ‘범무법인 여는’의 서범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교섭권은 노조가 갖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 활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라며 “삼성전자가 임금 같은 주요 안건을 노사협의회와 논의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노사협의회를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서범진 변호사는 “사측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가 존재하니 임금·휴식권 등 주요 안건은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공동교섭단의 양보안과 중노위의 중재를 거부했다. 서범진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은 2월 11일과 14일 조정 회의에서 노사협의회와 임금 논의하는 관행을 인정하라는 듯 주장했고, 노조 요구 중 하나라도 수용하면 요구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노조 패스는 노조 존중과 거리가 멀다.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5월 약속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조합원들은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영진이 소통

을 거부하고 노조를 계속 무시하면 파업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회의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노조들과 연대해 쟁의행위를 벌일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2월 2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0년 공동 단체교섭을 위해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1 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2 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3노 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 노조) 등 네 개 노조가 모여 만든 공동교섭창구이자 노조 연대체다. 2020년 10월 단체교섭 공동 대응에 이어, 21년 임금교섭도 단일한 창구로 대응하고 있다. 네 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 임금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삼성전자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다.

# LG전자 베스트샵 노동자 트럭시위 뒀다

LG전자 100% 지분 하이프라자, 노조 무시·장시간 노동·산재처리 거부 등 부조리 양관점 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지회, 노동시간 단축·식대 지급·차별 해소·민주적인 운영 등 요구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LG베스트샵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 찾기와 사측의 부조리 중단을 호소하며 트럭 시위에 나섰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지회가 2월 14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LG 하이프라자 전 직원 트럭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이프라자는 LG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전제품 유통 자회사로 ‘LG베스트샵’이라는 양관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김도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금속노조는 LG전자와 한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선언했다.

LG베스트샵 판매노동자들은 사측의 각종 부조리로 고통받고 있다. 2015년 매출 1조 4,500억 원에서 2021년 매출 3조 원으로, 5년 만에 매출이 두 배 늘었다. 사측은 보상은커녕 식대 기본급 포함, 장시간 노동 강요, 족저근막염·하지정맥류 등 산재처리 거부, 직급별 복지차별로 답했다.

이제현 금속노조 서울지부 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LG베스트샵 직원들은 평일부터 주말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폐점 시간을 넘는 야근까지 강요받고 있다. 가족과 평범한 저녁 식사는 사치가 되었다”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증언했다.

이제현 지회장은 “밤낮없이 걸려오는 고객 전화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배송이 지연되면 고객의 짜증과 욕설까지 듣는다. 사측에 대책을 요구했더니 영업사원의 당연한 업무라며 별일 아닌 듯이 얘기한다”라고 LG전자의 노동자 무시에 분노했다.

지회는 주요 요구로 ▲폐점 시간 30분 단축 ▲식대 원상 복원, 통신비 지급 등 임금체계 개편 ▲최대 매출과 연동한 성과급 ▲입구 대기 자율화와 매니저 근무화 교체 ▲직무 전환과 원거리 발령 시 본인 동의 의무 ▲불필요한 잡무 제거와 민주적인 회사 운영 ▲직급에 따른 복지차별 해소 ▲고객만족도 조사로 노동자 압박 금지 등을 제시했다.

## 현대기아그룹사 지부·지회, 정의선 지배구조 개편 등 대응한다

12기 현대기아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회의 출발 ... 임금·단체협약 비교 조사, 공동요구안 마련키로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기아그룹사 지부, 지회 대표자들이 모여 산업전환, 정의선 중심 현대자동차그룹 순환 지배구조 개편 대응책, 공동요구안 마련 등 2022년 현대기아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회의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월 15일 오전 노조 회의실에서 ‘12기 1차 현대기아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회의 의장은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현대기아그룹사 지부, 지회 조합원이 모두 9만 명이다. 비정규직 단위까지 더하면 10만이 훌쩍 넘는 규모다”라면서 “그룹사 대표자회의는 금속노조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산업전환 투쟁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표자회의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지부 등 완성차지부와 노조 내 현대자동차그룹사 지회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기

구다. 노조 현대자동차그룹사 지부, 지회 교류와 연대, 경영 동향 조사, 양재동 가이드라인 공동 대응이 목적이다. 2020년부터 정례화했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그룹사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지속 감시와 대응 ▲그룹사 임금·복지·단체협약 비교 조사와 공동요구안 마련 ▲그룹사 내 지부·지회에 관한 지지와 연대 등 세 가지 사업 방향을 정했다. 대표자들은 원활한 회의 추진을 위한 회의 기획단 구성도 결정했다.